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lanning and Modell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이 혜 원(Hyewon Lee)**

< 목 차 >

I. 서론	IV.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
II. 다문화에 대한 접근	V. 앞으로의 과제
III. 다문화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도출	VI.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되고 있음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세 단계로 세분화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고려한 특정 지역 단위의 다문화기관 연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어, 관중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도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구체화하였으며,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인구학적·지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다문화도서관정책, 다문화서비스, 이주민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had begun about the conflict between a lack of soci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program for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and a duplic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 in a specific area. This study was implemen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for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ulticultural policy, subdivided into 3-stages model to reach the multiculturalism as multicultural policy process. The first stage suggested the unification of a channel for establishing a policies, reinforcing the functions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The second stage attempted to build the multicultural institutes network in a specific area unit, considering of the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e third stage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organizations and proposed collaboration with library, school,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ervice center, sport center, community center, and cultural facility. Additionally, 3-stages model emphasized on civic organization's role. This study was offered a meta-platform led by library community for sharing the information about planning and managing of multicultural programs and also mentioned significances for formulating multicultural policies. As a result, this study was presented and specified the 3-stages model to reach the multiculturalism, and verified the various considerations which have influenced the refinements of the multicultural policies as the demographic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Keywords: Multiculturalism,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Library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services, Immigrants services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wlee@swu.ac.kr)

•논문접수: 2015년 6월 4일 •최초심사: 2015년 6월 4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2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37-366,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6.337]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007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100만을 돌파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과 고민이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야기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장·단기체류외국인은 150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2014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¹⁾ 29.5만명, 배우자 29.5만명, 자녀 20만명으로 총 79만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이 예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4년 7월 기준 204,204명이며,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의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²⁾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은 1964년 캐나다 Paul Yuzyk³⁾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캐나다는 1971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다문화정책을 수립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정책은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통칭한다(Breugelmans & Vijver 2004; Alexander 2005; 임동진, 박진경 2012, 34). 그러나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가나 민족마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한 국가 안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범위와 정책에 혼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처, 지자체, 복지기관, 도서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또는 학문적인 접근으로 다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정 지원을 비롯하여, 복지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도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다문화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은 당연한 일이나, 몇몇 학자들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노지현의 연구(2012)에서는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은 “정책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나 이보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나 실행 경험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채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급했다는 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도 드러나 있다. 2014년 1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서에는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2)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4.7), 안전행정부

3) Paul Yuzyk(1913.6.24-1986.7.9)는 캐나다 역사학자이자 상원의원으로, 다문화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Wikipedia).

한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지식정보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기구인 지역대표도서관 내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62). 또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의 장으로써의 도서관서비스 확대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기반 시설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둘째, 다문화콘텐츠 개발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콘텐츠 목록의 최신성을 보장하며, 동일 지역 내 다문화서비스 중복 발생을 막고, 다문화콘텐츠 지속적 개발 및 정보공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자료실 다양화 및 다문화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운영 및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발전방안들을 분석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사회적응 및 통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동일 지역 내 다문화 서비스 중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위의 노지현의 연구(2012)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다문화서비스에 대해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고민하는 바를 확인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다문화사회를 분석하는 정책 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정책 모형을 구축하고 세분화하여, 다문화주의의 통합에 도달하는 단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셋째, 인구학적, 지리학적 특성 등과 같은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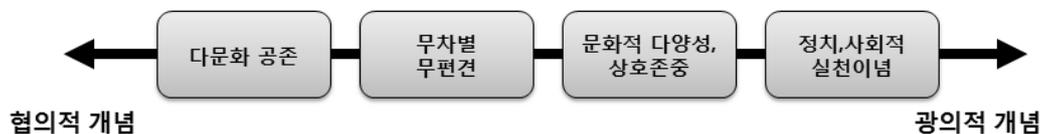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특성, 다문화 서비스 정책에 대한 행정부처 중심의 노력,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도서관을 비롯한 다문화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각 기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 수립 과정,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서관계의 새로운 역할,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Ⅱ. 다문화에 대한 접근

1.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본 장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는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다문화주의가 갖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임동진과 박진경의 연구(2012)에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프랑스의 Le Petit Robert가 1971년에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학의 Haper Collins 사전(1991)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원성(cultural pluralism)의 인정과 증진이고, 동시에 주류문화와의 관계에서 소수집단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1991; 임동진, 박진경 2012, 32), Wikipedia 사전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생각이나 정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정의를 기반으로 임동진과 박진경(2012)은 <그림 1>과 같이 다문화 개념의 스펙트럼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다문화주의 개념의 스펙트럼

<그림 1>을 설명하면,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상태를 지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이루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와 적극적인 정책적인 실천이념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과 더불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지지)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국가 개별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간의 비교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가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가별 다문화주의의 태도(지지) 경향 분석
(임동진, 박진경 2012, 37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

〈그림 2〉에서 제시된 국가별 다문화주의의 태도는 개별연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가지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태도를 가지는 나라를 밝혀내고, 우리와 다른 태도를 가진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확인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그 의의가 있겠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최초의 국가 간 비교는 ‘Eurobarometer 2000 data’를 활용한 Leong & Ward(2006)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다문화주의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수(예: 경제발전수준과 인구밀도, 문화가치성향 등)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는 15개국(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표본 수는 각국에서 성인 1000명 이하)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국가별 수준과 개인별 수준에서 비슷한 형태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인도주의적일수록, 평등주의적일수록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수주의적일수록,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다문화주의의 태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eong & Ward, 2006).

다음의 연구들도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종태의 연구(2013)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문화적, 인종적 동일성과 하나의 민족 집단의 국가 형성을 확인하고, 현재 한국인의 외국인 인식이 ‘선진국’ 출신의 선호와 ‘후진국’ 출신들에 대한 편견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동엽, 최윤정, 강승혜의 연구(2012)에서는 한국 중·고등학생의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외국 문물 도입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외국 문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다문화주의의 현상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라는 점이다. 윤인진(2008)은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중심을 국가와 시민으로 나누었다. 국가

주도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들을 통합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캐나다와 호주 가 그 대표적인 예이라고 설명하였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 되는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 다문화주의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주의의 주체인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구하게 된다(윤인진 2008, 87-88). 윤인진의 연구(2008)에서는 국가주도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를 상응하는 개념으로 제안하지는 않고, 두 가지의 접근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이민국가가 아니며 단일민족의 기운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이미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맞는 이념과 정책이 필요하였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① 이민자 및 이민자 2세 증가, ②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와 시민운동 단체들 간의 협력 체계의 강화, ③ 법무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행정부처 간 세력 확대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주노동자, 국제이주여성 관련 시민단체 등이 독립적으로 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건수(2012)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열풍’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는 다문화사회에 관한 최근 국내학계의 논의들이 다문화사회의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분별한 논의나 용어의 오용과 혼용으로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할 정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둘째는 ‘다문화’가 일종의 관용구로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연장선에서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시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주류 또는 다수집단과 다른 비주류 또는 소수자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Kymilicka 1995; 오경석 2007; 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37). Castles & Miller(2003)와 Martiniello(2002, 윤진 역)가 제시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모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으며, 차별적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 등 세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별적 배제 모형을 중

심으로 동화주의 모형이 가미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외국인과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대정책을 펴고,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또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엄한진 2006, 35). 한국이나 독일과 같이 다인종이나 다민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정책 모형은 초기에 차별적 배제모형에서 사회통합적 동화주의 모형을 거쳐 다문화모형으로 이동하게 된다(김미나 2009).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동화주의 모형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는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37-38).

2. 다문화정책에 대한 각 분야의 노력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3년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는 194개 과제, 예산 4,983.43억원이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편] 2013, 26).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처 중 외국인정책과 관련 있는 부처는 총 13개로 다음의 <표 1>과 같다.

위원회로는, 국무총리 소속위원회로 외국인정책위원회⁴⁾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⁵⁾ 등이 있으며, 국무조정실장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⁶⁾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도서관’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표 1>에 정리된 부처 중 본 연구에서 고려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정부, 행정자치부이며, 세 부처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제시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전략 및 정책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이라는 범주아래 연결될 수 있는 교육부 프로그램도 포함시켰다.

-
- 4) 주관부처는 법무부이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함
 - 5)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함
 - 6) 주관부처는 노동부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의 기능을 함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2호)

〈표 1〉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부처	추진방향	2013년 과제수	2013년 예산
미래창조 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 분야 우수 과학자 및 연구자 유치를 지원하고,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 및 해외학자 유치 확대 ■ 국내 체류외국인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IPTV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확대 ■ 외국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편리성 제고 	3	5.00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 ■ 교육을 통한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17	1,399.35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청년의 상호 문화·관광 체험 기회 확대 및 비자발급 서비스 개선을 통한 외국인 유입 촉진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재외동포 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도모 	9	1,499.30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와 자본유치를 위한 출입국 및 비자 정책 추진 ■ 외국인의 법질서 의식 향상과 준법문화 정착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성실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적 혜택 부여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확대 ■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적극적 난민 정책 추진 	81	168.46
행정 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 지원체계 정비 및 외국인주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및 민원제도 개선 	5	10.18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이주민의 자기 문화 표현기회 및 국민과의 상호 문화교류 확대 ■ 국내 거주 이주민의 우리문화 적응 지원 강화 	19	1,166.86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2	16.26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해외 전문·기술 인력을 발굴·유치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인재활용 지원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육성 	9	42.00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글로벌 웰스케이 활성화 지원 ■ 인도적 차원에서 사각지대 외국인에 대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 보장 ■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처우 개선 	10	108.58
고용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활용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 결혼이민자 등에게 안정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강화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자진 귀국 유도 및 송출국 책임 강화를 통한 불법체류 방지 	15	246.52
여성 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9	192.7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승관광 체계 개선을 통한 환승관광 활성화 ■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 강화 	2	0
해양 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을 통한 밀입국 방지를 위한 항만 보안 역량 강화 ■ 해양·수산분야 중사 외국인근로자 도입 권리 강화 및 인권보호 	2	67.00

■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다문화 사업은 총 9개이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참고).

<표 2>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서비스’ 내용

사업명	주관부처 및 기관	사업내용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주민 등 주한 외국인의 원활한 한국 적응을 위한 다문화 사회 대비 특수 목적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외국인 국악강좌	국립국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전통 문화를 홍보하고 문화의 다양성 이해 증진
다문화 꾸러미 개발 및 보급	국립민속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도모 ■ 실물자료를 통한 진정성(Authenticity) 있는 다문화 체험기회 제공 ■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문화정책적으로 해소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유·초등학생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아시아 우수 동화책 다국어 동화구연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독서진흥과 부모나 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도록 함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정보’ 서비스 운영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 및 국내거주 다문화인에게 다문화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아시아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 및 친근감 형성과 사회적응 도모 ■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를 위한 전시연계교육 개발·운영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 이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민에게 모국정보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건 및 이주민(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민과의 이해증진 및 화합 도모
다문화 지역순회공연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거주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이주민, 다문화가정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및 지역 내 이주민과 내국인의 화합의 장 마련

■ 행정자치부 ‘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

‘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한 2년차 이상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며, 새내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인 ‘다누리’를 통해 전반적인 한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표 3>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착 지도자교육’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포털 ‘다누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활정보 제공 : 체류 및 국적취득정보, 교육지원, 치원지원, 의료지원, 긴급지원, 생활지원, 청소년 지원 등을 제공함 - 학습정보 : 한국어회화지원, 나라별문화소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결 - 다누리콜센터 운영 - 레인보우(Rainbow+)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운영함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및 상담·사례관리 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등
이주배경청소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Rainbow School)을 통해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교우관계 등 프로그램 운영 ■ 후반기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 운영

■ 교육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사업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는 모든 학생(일반·다문화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교로,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4년 교육부가 기존 ‘글로벌 선도학교’의 거점형, 집중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이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확산에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4). 첫 번째는 국내 외국인 주민과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부응하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지원’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친화적 교육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다문화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해결하는 등,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요소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육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요소

기본 요소	교육 내용	예시
문화간 이해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이해와 문화간 상호 작용 이해 ■ 문화간 의사소통 ■ 문화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나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문화 이해하기 ■ 독서논술을 활용한 한국과 세계 각국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해하기 ■ 세계문화유산 신문 만들기를 통한 문화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간 이해하기
문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의 인정 ■ 자민족중심주의 탈피 ■ 다양한 관점의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을 통한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한 다양한 관점 이해하기 ■ ‘소수자 되기’를 통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기
반편견 반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편견 ■ 평등·인권·사회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 또는 차별 당한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의 부정적인 영향 이해하기 ■ 인권차별을 다루는 영화를 감상하고 모둠별 토론 활동 ■ 미디어 속에 나타난 다문화에 관한 오해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문화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기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의존과 협동심 ■ 세계시민 ■ 세계문제와 지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과학교과와 연계하여 생태적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기 ■ 한반도의 분단 상황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함

다문화주의 개념의 대한 스펙트럼(〈그림 1〉참고)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해 본다면, 아직은 다문화공존이나 무차별 및 무편견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가 ‘결혼이주자’와 ‘출생국민’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문화주의의 실현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다. 노동이주자나 이들 가족 및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관련 도서관계의 논의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에 수록된 17개의 논문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5〉 다문화관련 도서관계의 논의 및 현황 분석

세부 주제영역	해당 논문
다문화프로그램 분석 및 서비스 운영 현황	김수정(2012) 김영미, 조인숙(2009) 안인자, 박미영(2011) 조용완, 이수상(2011)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3)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	노지현(2012) 양수연, 차미경(2011) 이미정, 이미정(2013)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2009.6)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	김기영, 오혜연(2014) 김영미, 조인숙(2011) 오혜연, 김기영(2014)
다문화서비스 협력망	이혜영,곽승진(2009)
다문화 장서 목록 구축	노지현(2008)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2011)
다문화 환경에서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이수상, 장임숙(2010)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역량	이연옥, 장덕현(2014)

위의 논문들 중 본 연구와 연계가 깊은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지현의 연구(2012)에서는 ‘다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의 가치를 도서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문헌연구와 사례 도서관 관찰 및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방향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미국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성찰과 조망을 통해 우리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수연과 차미경의 연구(2011)에서는 다문화인 기초조사, 다문화인 요구조사, 다문화서비스 계획, 다문화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장서 준비 및 제공, 다문화서비스 사서 및 인력, 다문화서비스 홍보, 다문화서비스 주변 환경 등 9개의 영역으로 다문화서비스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다문화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제안하여, 개별 도서관이 유념해야 할 주변 환경, 즉 다문화관련 국가정책과 함께, 국가도서관, 사회기관, 타 공공·민간도서관, 교육기관 및 구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미정, 이미정의 연구(2013)에서는 인천시 중앙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 운영을 분석하기 위해 7개 다문화서비스 항목, 장서·콘텐츠, 사서·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정

보이용시설, 장비, 편의시설, 홍보 및 대외 협력 등을 적용하였으며, 한운옥, 조미아, 김수경 등의 연구(2009.6)에서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유형을 자료 서비스, 육아 및 교육 프로그램,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혼합 프로그램, 내국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향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현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그에 맞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타 다문화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제언은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단위도서관보다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개발팀을 구성해 해당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Ⅲ. 다문화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도출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다문화정책 모형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 논문들에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 정보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타 기관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타 기관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 분석 대상을 확장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학교 등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대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전문가 인터뷰 대상은 사전조사를 통해 다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타 기관과의 연계에 관심이 많은 기관의 담당자(<표 7> 참고)들을 선정하였으며, 소재지를 고려하여 도시에 있는 기관과 농촌에 있는 기관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표 6〉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항목	전문가 인터뷰 주요 내용
기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 주요 업무 ■ 구성원의 주 전공
업무 소개	■ 해당 기관의 성격과 본인의 전공을 고려한 업무 설명
서비스 내용	■ 해당 기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타 기관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기관 소개 ■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다문화 프로그램 소개 ■ 타 기관과의 연계 시 발생하는 문제점
제안	■ 제안사항

〈표 7〉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소개 및 주요업무

구분	성별	경력	소속 기관	지역	주요업무
사회복지사 A	남	7년차	복지관 (구립복지관)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사 B	여	15년차	다문화 지원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 지원
교사 A	남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과)	경기도 파주시	■ 교육부 다문화교육중점학교 운영 교사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됨)
교사 B	여	13년차	초등학교 (학급담임)	경기도 남양주시	■ 교육부 다문화교육중점학교 운영 교사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됨)
도서관장	남	18년차	도서관 (시민단체 주도)	서울특별시	■ 다양한 다국어 도서 수집 및 다문화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서 A	여	10년차	도서관 (교육청 소속)	전라남도 진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사서 B	여	8년차	도서관 (구립도서관)	서울특별시	■ 독서문화프로그램, 자원활동가 관리
사서 C 사서 D	여 여	30년차 16년차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기획 및 협력업무 ■ 어린이독서진흥 정보취약계층 독서진흥

■ 사회복지사 A

“정보 제공을 도서관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 (중략) 영상 쪽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에게 교양강좌를 그대로 자막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뭐 유학생 출신 분을 섭외해서 그 나라 말로 특강을 하게 하든가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3자가 보면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거예요.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특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인관련 강좌도 위인을 매개체로 하는 것이니 도서관에서 개설을 하는 것이죠. 교육학적이며, 문화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있으니 사회복지사는 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도서관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기관간에 합의가 되면 되겠죠.”

“도시와 농촌의 프로그램은 달라야 합니다. 양쪽의 특징이 다릅니다.(중략)”

■ 사회복지사 B

“저희가 사실은 책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다문화체험 교육하면서 저희 강사분들이 가면서 지역사회 어린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정보서비스는 위치적인 어려움이 있구요. 첫째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도서관이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중략) 저희 담당자가 도서관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멘토와 멘티 오면 좀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좋겠어요. 하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안겁니다. 도서관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중략) 도서관 장소를 저희가 빌리기도 되게 어렵구요.”

“저희는 태블릿 PC를 샀어요. 작년에 12월에 뛰었으면 저희가 정보를 올려도 카페가입을 안 해주시면 정보를 못 보세요. 그래서 카페가입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몰랐다고 카페에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을 죄송한 이야기예요. 카페를 가입을 못 해서 못 했는데 정보를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아예 태블릿 PC를 두고 가입을 한번 해 볼까요 하면서 (중략) 그런데 센터는 컴퓨터실이 없어요.”

■ 교사 A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구요. 학교라는 곳은 다문화 교육이 전문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곳이 아니잖아요. 다문화 교육이든 통일이든 선생님들은 다 수업과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업무를 덤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덤으로 (일이 시작되어) 강연을 요청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디에 가면 다양한 강연의 내용과 자료, 인력풀이 잘 제공되어 진다면, 저희 시간을 아껴서 양질의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하니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강사)을 불렀을 때, 어떤 정도에, 어떤 퀄리티에... 뭔가를 해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중략) 학교가 바쁘다보니 다른 학교로 뭔가를 보내는...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사실은 무시되기 쉽죠. 워낙 많은 공문 속에 파묻히고, 또 홍보도 잘 안될 수도 있고.. (중략) **시라든지 공공기관들이 같이 뭔가를 한다고 해도 협조가 안 되고, 행사로 시작하여 실적과 관련이 되면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로만 전락되기 싶죠.”

“다문화라는 주제 자체가 학문적으로 책을 접하기에는 솔직히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쉽게 손이 갈 만큼... 재미가 없으니(중략) 대다수의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죠.

학교가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전체 학생의 다문화 이해 역량 쪽으로 바뀌고 있죠.”

“흥미와 재미를 위해 ‘광고만들기’ 같이 가볍게 만들 수 있게... 해당 학교는 (다문화)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연구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문화를 다루고, 관련 행사, 체험학습 등으로 (중략) 공공이나 다른 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거나...”

■ 교사 B

“교육부의 정책자체가 다문화교육은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문화 아이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만,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 내용은) 교육부 다문화중점학교 정책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연계는 100% 필요하죠. 학교 교육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연계가... 학교에서는 다문화만 하기에는 방대한 교육 환경에 있기에 불가능하고, 즉 100% 다문화 교육에 올인 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 기타 등등 센터가 엄청 많아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센터도 있구요. 그런 센터들은 다문화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천명이 넘는 학생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아우르기에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수한 다문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공부방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공부를 가르치거나, 학교와 센터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모두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연계가 필요해요”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부모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저희 학교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주 1회 정도 모아 도서관에서 재능기부를 해주셨어요. 또 **공공도서관 사서선생님이 무료로, 주 1회 오셔서 동화구연해주셨어요.”

■ 도서관장

“우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규모가 작다 해서 작은 도서관은 아니거든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기반으로 도서관이라고 그런 커뮤니티기반으로 한 작은도서관운동을 시작한 건... (중략) 세월이 흐를수록 과제는 많아지는데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없어지고 마치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략) 또한 국가의 획일화된 지원 정책도 문제입니다. 각 지역만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죠.”

“다문화가 10년을 접어들었는데... 도서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모두 생애주기현상에 맞춰 이주민에서 책임기 시키고, 선주민들의 입장에서 책을 읽자고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출판, 도서관, 서점 등의 형태가 없고 그저 좌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즉 그들은 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책임기는 현실성 있는 생애주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결혼이주여성에서 책임기 문화를 알리고, 적극

적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서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본인의 출신국에서 오는 다른 이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2세대에게는 한국의 정서와 본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 사서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하고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중략)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됩니다.”

■ 사서 B

“저희 동네에는 여성발전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노인분들이 다문화 어린이들을 픽업해주는 픽업선생님으로 활동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픽업선생님보다는 프로그램 보조 인력으로 활동합니다. 다문화가정 어머님들이 노인분 들한테 마음 놓고 맡기시길 못하시겠대요. (중략)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 자체 내에서는 아이들하고 모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 도서관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다문화아이들을 모집을 하려면 다문화센터에 연계해야 가능해요. 동사무소도 구청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 사서 C

“그간 저희 도서관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사업 및 사례집도 발간했으며, 공공도서관 및 다문화기관 연계를 위해 ‘2015년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 운영하고 있고, 그 중 4개 도서관이 다문화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총서를 발행하여 전국 다문화지원센터에 배포하였는데... (이용자에게) 전달과 활용 면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부처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반포에 있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나 다문화서비스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도서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았는데...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에 대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 기관의 다문화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이 예산 배정이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외부에서... 외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생산하고 배포한 다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의 활용, 지속적인 다문화콘텐츠 개발, 다국어 장서 목록 구축 등 앞으로 고민해야 할...”

■ 사서 D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총서를 5개 다국어로 발간하여 다문화지원센터 및 공공도서관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전례동화도 다루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웹 서비스 중입니다. 관련해서 다문화 동화구연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를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농어촌 초등학교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의 인터뷰 내용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과의 협력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며, 둘째, 도서관과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도서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정보매체 및 공간 공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중심의 다문화교육에서 일반 가정으로 확대되는 교육부 다문화정책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들의 고민과 도전은 지속적인 예산 배정과 바쁜 학교 업무 및 입시 교육 환경에서 다문화와 같은 특별한 주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안내, 인력, 홍보,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하나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콘텐츠의 생산에 힘을 쓰며, 특히 콘텐츠 자체가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다양한 수업, 행사, 체험학습의 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커뮤니티 안에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하는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도서관의 고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다문화가정 현황 파악이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둘째, 언어 장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기초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 셋째, 선주민 위주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이 주를 이루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도서관계의 정책이나 도서관 환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보급의 요구가 대두되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기관 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공도서관에 콘텐츠를 배포하고 활용에 대한 독려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되는지, 얼마만큼 활용되는지 등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학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학교, 도서관 등의 다문화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된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 기관들의 협력망을 조성하고, 일원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산된 다문화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문화 관련 원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기관별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업무매뉴얼은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일관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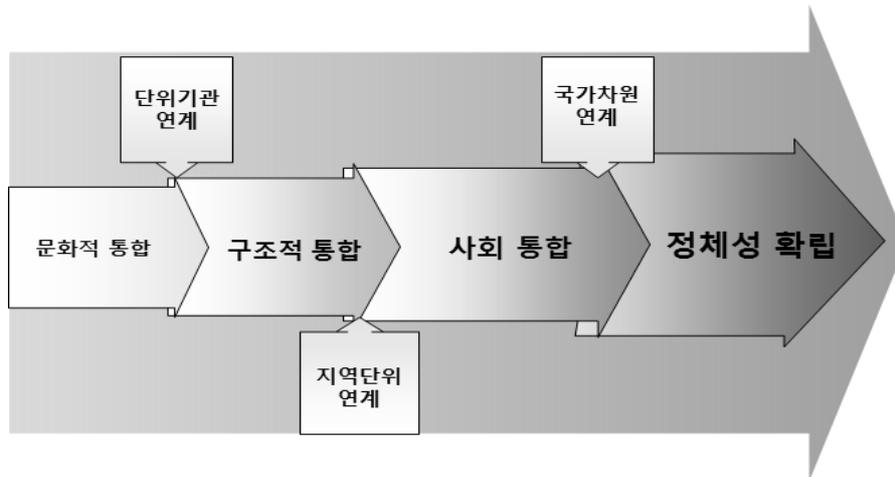
둘째, 첫 번째에서 제안한 국가차원에서의 다문화 협력망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내의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정착이나 생활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다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도서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를 도모하며, 이주학생에 대한 맞춤 교육체계를 제공하는 ‘학교’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다문화 프로그램 홍보 방식과 채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문화정책을 제안할 때 농어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정책에서는 이주 유형, 가족구성 형태, 제공받는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세, 지리적인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결혼이주자들이 많으며, 특히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다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나,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제공받지는 못한다. 농어촌은 행정 기관의 수 자체가 적으며,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들은 기관의 성격과 별개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도시는 노동이주민의 인구가 많으며, 가족단위로 이주했거나, 가족은 출생국에 있고 본인만 우리나라에 이주한 경우가 많다. 도시는 농어촌에 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은 많으나, 일자리 마련과 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대체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반면, 가족단위 이주 가정으로 인해 학생인구가 유입된 도시 지역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및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언어 장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이주와 귀화와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초기 한국 정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생활안정 및 교육, 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출생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정서 등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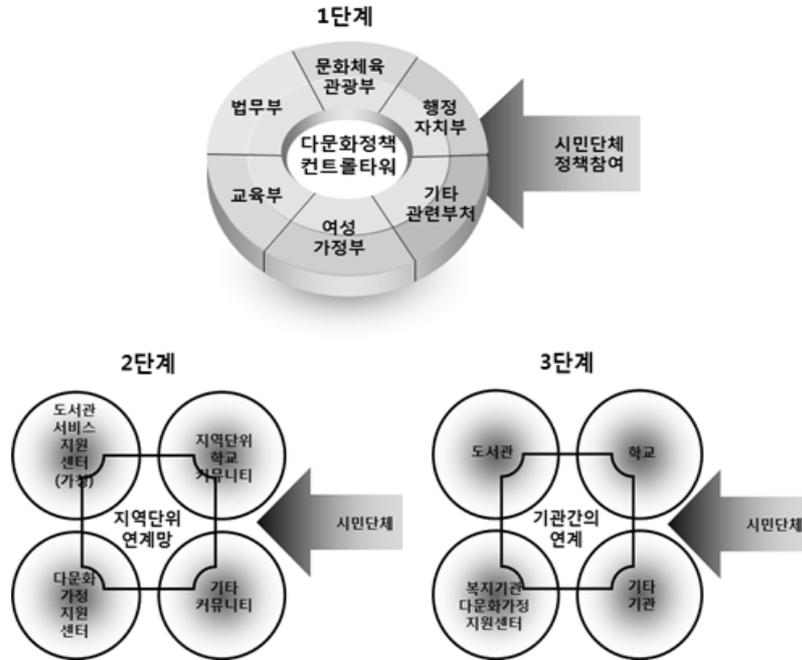
IV. 다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제시된 개념과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그림 3>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림 3>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록우드(1969)는 다문화주의 통합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시스템통합과 사회통합이다. 시스템통합의 경우 사회시스템들의 결합을 의미하고, 사회통합은 이러한 사회시스템들의 참여, 즉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통합을 의미한다(김태원 2012, 183). 김태원(2012, 183-184)은 문화적 통합(Kulturation: kulturelle Integration)을 성공적 사회화를 위해 요구되는 문화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인간은 언어를 배움으로써 사회에 통합되는 첫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구조적 통합(Platzierung: strukturelle Integration)으로, 직업을 가지거나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이주민이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회통합(Integration: soziale Integration)으로, 이주사회의 지식이나 상징에 대해 다양한 지향점을 가지는 것으로, 주로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로 가시화된다. 넷째는 정서적 동일시가 이루는지는 과정(Identifikation: identifikatorische oder emotionale Integration)으로, 개인적 행위는 집단을 지향하는 행위로 바뀌게 되고, 집단정체성이나 우리라는 감정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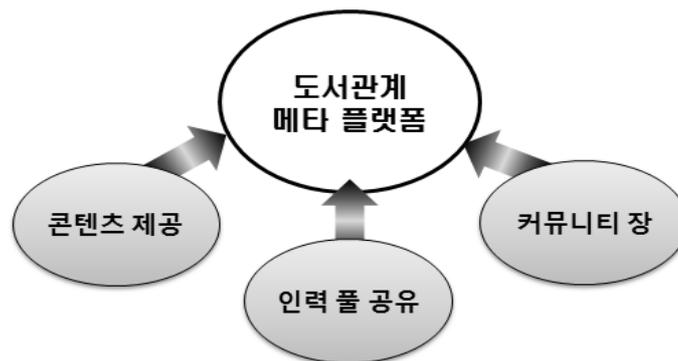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정책 세분화

통합다문화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그림 3>에서 제시한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1차부터 3차까지 세분화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사회통합의 힘을 기반으로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방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는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 통합을 견고히 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단계로, 특정 지역 단위의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정 지역 연계망은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서 제안한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의 정책,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정책, 교육부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사업 정책 등을 이해하고, 행정부처 아래에 있는 센터와 지역지자체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 먼저 도서관 중심에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등의 연합체로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힘쓰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교육 및 과제를 고민해야 한다. 결혼이주민이 늘어감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중점 학교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하고, 다문화교육의 우수사례 확산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기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노동이민자, 한국계 중국인, 유학자, 단기체류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적 통합아래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로,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중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관련 실제 활동이나 프로그램 제안은 배제하였으나, 세 번째 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대상자를 추천 해주고, 도서관에서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징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복지기관의 교통수단 제공서비스 및 찾아가는 서비스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통해 생활밀착 프로그램 개발, 주민센터 공간 활용을 통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 등 다양한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구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의 다문화정책의 세분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시민단체의 참여이다. 시민단체는 정책 수립이라는 첫 단계부터, 다문화 인구 모두가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림 5>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한 메타 플랫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정책 방향성을 <그림 5>로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메타 플

랫폼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 제공의 기능으로 다양한 수준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공유하여, 학교 및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에서는 교육자, 교육 수혜자 등과 같은 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주체, 콘텐츠 활용 의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 풀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다문화교육을 이끌어가는 인력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인력자원의 육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다문화교육에 맞는 인재는 교육 대상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므로, 도서관에서도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재능기부, 채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특정 지역 내에 다문화와 연결된 전문가들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홍보·진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V. 앞으로의 과제

다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음과 같다.

첫째, 4장에서 제안한 다문화정책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국가차원에서의 단일 정책창구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위에서 제안한 대로, 관련된 부처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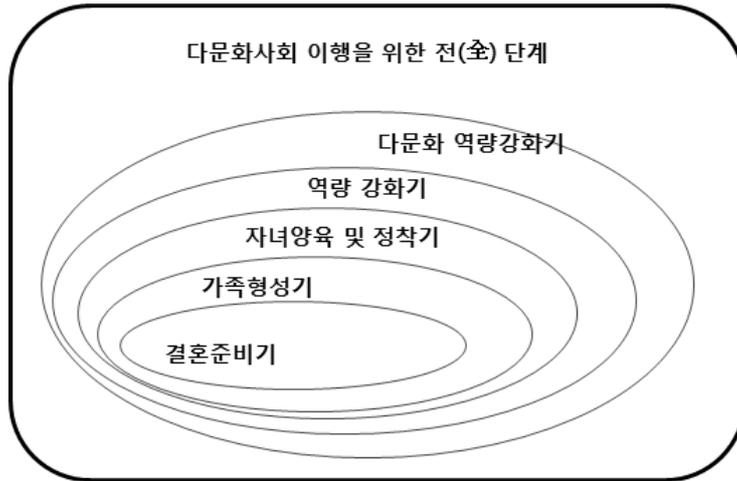
둘째, 생애주기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노동과 결혼, 두 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혼이민자는 출산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그림 6>7) 참고)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에서 이주해온 주민은 같은 민족이나 국가에서 온 동포들의 멘토로 활동할 수가 있다. 정책적으로, 잠재 멘토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를 발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즉 다문화 정책은 ‘결혼준비기’ 부터 ‘자녀양육 및 정착기’ 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이주민들이 새로이 이주해 온 멘티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멘토 혜택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 수립, 운영, 홍보 등 다문화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을 농어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그림 7>참고). 농어촌형 다문화정책은 장소를 중심으로 기관이

7)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부분을 확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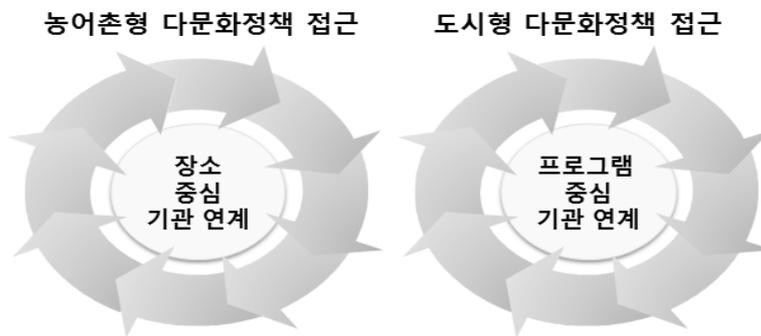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cited. 2015. 5. 2].

연계하는 방식이다. 농어촌의 특성 상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성격이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접근성이 편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6> 생애주기별 다문화사회

반대로, 도시형 다문화정책 접근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관들이 연계하는 것이다.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책임지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도서관 및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프로그램 중복개발을 방지하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보장하게 된다.



<그림 7> 다문화정책 접근; 농어촌형과 도시형

넷째, 다문화정책 범위의 확장이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가 및 문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관에서 강조하는 독서프로그램은 교육부와 더불어 학교와 연계하여 또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해당 독서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독서 문화를 접해 보지 못한 이주민들에 대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대상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IT 강국인 우리나라 정보환경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안 된 이들도 많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 다문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도서관 예산 삭감, 지방화·분권화, 소비자 행태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를 예측하고, 공공도서관이 지역민의 창조, 학습, 커뮤니티 기능과 디지털기술과 미디어 생산의 중심 역할(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33)을 수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 기획 및 운영을 위해 행정부처,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리적·정보적·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다문화정책을 공유하는 여러 기관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주제의 범위 아래 도서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보 및 정보매체 활용 그리고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이해, 정보활용, 문해 교육 등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기관, 체육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도서관과 사서에게 있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다문화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도 마련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 간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 연계 추진을 고려중이며, 다문화정책을 고민하는 연구들도 부처 간의 또는 기관 간의 협력 모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을 개발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통합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을 세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는 사회통합의 힘을 기반으로 다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장을 단일화하여, 관련된 부처 기능을 강조하는 동시에,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조적 통합을 견고히 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단계로, 특정 지역 단위의 연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정 지역 연계망은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적 통합아래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로, 개별 기관들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공별 도서관, 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체력증진센터,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관련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부가적으로 다문화정책의 세분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시민단체의 참여이다. 시민단체는 정책 수립이라는 첫 단계부터, 다문화 인구 모두가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방향성과 모형화를 위한 도서관계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장인 메타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한 메타 플랫폼은 다양한 수준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공유하여, 학교 및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를 지원하고, 인력 풀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며, 특정 지역 내에 다문화와 연결된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다문화정책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국가차원에서의 단일 정책창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우리나라 인구 변화 및 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결혼이민자 생애주기 다문화정책이 견고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 수립, 운영, 홍보 등 다문화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을 농어촌형과 도시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농어촌형 다문화정책은 장소를 중심으로 기관이 연계하는 방식이며, 도시형 다문화정책 접근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관들이 연계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집중하고 있는 다문화정책 범위의 확장이다.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가 및 문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도서관의 다문화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도서관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발굴하고,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다른 후속 연구로는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중복적인 다문화서비스의 제공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결과 중심의 평가, 양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다문화관련 기관의 평가 기준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다문화서비스 기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4. 『다문화교육중점학교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 홈페이지 <http://multiculture.dibrary.net/boards/show/801/4203/ko_KR.do#business01> [인용 2015. 5. 6].
- 김기영, 오해연.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77-100.
- 김수경. 2012. 한국전래동화의 독서치료적 가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71-295.
- 김영미, 조인숙. 2009.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47-64.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 김종태. 2013. 한국 다문화의 맥락적 이론화를 위하여 : 캐나다 사례와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39-757.
- 김태원.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제9호: 179-213.
- 김혜영. 2014.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 이념과 정책의 탈구. 『여성연구』, 87(2): 7-43.
- 노지현. 2008.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397-420.
- 노지현. 2012. 한국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27.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4-201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편]. 2013.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과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3_03_04.jsp?view=siteview3> [인용 2015. 5. 6].
- 양수연, 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

- 오해연,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주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25-145.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72-103.
-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295-321.
- 이수상, 장임숙. 2010.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91-419.
- 이연옥, 장덕현. 2014. 다문화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253-276.
- 이혜영, 광승진. 2009. 다문화정보서비스의 협력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47-169.
- 임동진, 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9-62.
- 장임숙, 장덕현, 이수상. 201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53-374.
-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 조현상. 2013. 국가의 다문화가족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8)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127-152.
- 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2(1): 33-70.
- 한건수.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91-122.
- Leong, C. H. and Colleen Ward. 2006. "Cultural Valu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The Case of the Eurobarometer Survey on Racism and Xenophob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799-81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and Mi-Young Park.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 Cho, Yong-Wan and Soo-Sang Lee. 2011.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69-297.
- Choi, Woong-Seon, Yongmo Lee and Woon-Hyun Choo. 2012. "A Study on the Central Government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on: Focusing on a Comparison of Multicultur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Germany."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22(1): 33-70.
- Han, Geon-Soo. 2012. "Multiculturephobia and the Discourse of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 Which Multiculturalism?" *Journal of Multicultural Studies*, 1(1): 113-143.
- Han, Yoon-Ok, Soo-Kyoung Kim and Mi-Ah Cho.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 Han, Yoon-Ok, Soo-Kyoung Kim and Mi-Ah Ch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Strategies of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91-122.
- Jang, Im-Sook, Durk-Hyun Chang and Soo-Sang Lee. 2011. "The Knowledge Structure of Multicultural Research Pap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353-374.
- Joe, Hyeon-Sang. 2013. "A Study on the Making Multicultural Family by the Nation : Analyze the 2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s plan(2013-2018)."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4: 127-152.
- Kim, Gi-Yeong and Hae-Yeon Oh. 201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Users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77-100.
- Kim, Soo-Kyung. 2012. A "Study on the BiBliotherapeutic Values of Korean Folk-tales: Focused on Establishing and Analyzing their Situ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271-295.
- Kim, Young-Me and In-Sook Cho. 2011.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Multicultural Users on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03-124.
- Lee, Hye-Young and Seung-Jin Kwak. 2009. "A Study on Cooperation Networks for Multicultural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47-169.
- Lee, Mi-Jung and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95-321.
- Lee, Soo-Sang and Im-Sook Jang. 2010. "Information Literacy Gap of Migrant Worker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391-419.
- Lee, Yeon-Ok and Durk-Hyun Chang. 2014.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y for Multicultural Services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253-276.
- Lim, Dong-Jin and Jinkyong Park. 2012. "An Empirical Study of Policy Participants' Attitude and Preference on the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 Focused on Public Servants, Service Providers, Exper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6(2): 29-62.
- Oh, Hae-Yeon and Gi-Yeong Kim. 2014.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125-145.
- Rho, Jee-Hyun. 2008. "Lesson from the Cataloging Expression on Multicultural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397-420.
-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 Yang, Soo-Youn and Kyeong Cha.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311-332.